

# 나에게 든든한 구독자가 있다

KBS **준천**

김영준 기자



'학교전담 경찰관 수 감소' 뉴스에 대한 관심



'강원지역 학생 수 감소' 뉴스에 대한 관심

보도된 기사를 보고서 기사 주소 링크와 함께 보내준 큼지막한 '엄지척' 이모티콘

나에게는 든든한 구독자가 있다. 그는 나의 취재원이었다. 그는 7년 전 은퇴하고 지금은 민간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이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강원도의 한 경찰서였다. 그는 경찰관이었다. 내가 쓰는 기사는 주로 그가 일하는 조직의 문제점들이었다. 그도 그런 보도에 낭패를 경험한 일이 있다.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가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계급 승진의 벽에 부딪혀 퇴직했다. 난 그런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그가 나의 뉴스 구독자인지는 2년여 전부터 알게 됐다. 그는 2년 전부터 내가 보도한 뉴스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날에 연락을 해줬다. 방송된 기사 인터넷 링크와 함께 큼지막한 이모티콘 '엄지척' 을 보내주었다. 가끔 다른 지인들이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사를 보고서는 연락을 주기도 했지만 그만은 꾸준히 내게 '엄지척' 을 줬다.

그가 모든 기사에 '엄지척' 을 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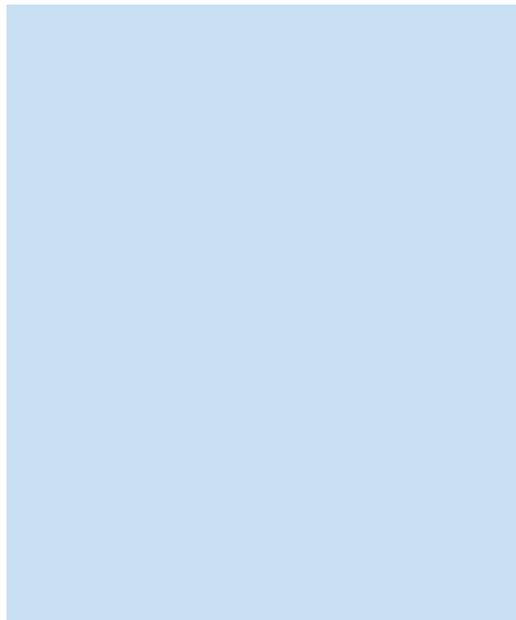
강원도 횡성의 한 초등학교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



강원도 화천의 한 초등학교

강원지역의 교육 분야를 담당하면서 시골마을 작은학교부터 도심지 학교 등 많은 학교를 발품 팔아 취재하고 있다.

은 아니다. 르포(reportage)성 기사나 심층 취재,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소소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 ‘엄지척’을 주었다. 그렇기에 그의 엄지척이 참으로 반가웠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크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무덤덤하게 흘러보는 정도였다.

이후 나는 최근 1년여 동안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그 기간 그가 보내주는 ‘엄지척’은 없었다. 기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 연수가 종료되면서 다시 보도국에 복귀해 힘에 부치지만 새로운 분야인 교육 쪽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조금씩 적응해 가며, 새로운 담당 출입처에 대한 공부도 해 가면서 부족하지만 기사를 썼다. 그러자 다시 기사 링크와 엄지척이 날아왔다. 그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나를 격려해주는 것이다. 고마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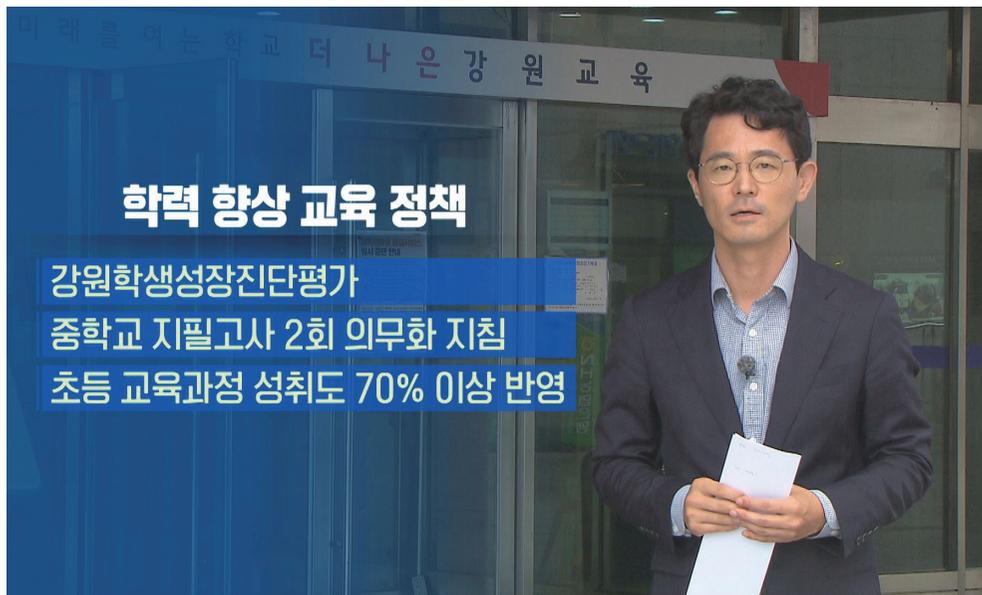
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쓴 모든 기사에 응답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보다 ‘엄지척’을 주는 횟수가 줄고 있다고 느껴졌다. 아마도 내가 쓴 기사의 품질과 시청자의 소구성에 대한 부분이 걸렸다. 그런데 업무 복귀 이후 2달이 지나자 그가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가 보내는 ‘엄지척’ 기사의 상당수가 나 스스로 생각해본 ‘엄지척’과 비슷한 범주 안에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그가 보낸 기사와 보내지 않은 기사를 구분해 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내가 힘을 들인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 예를 들어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 자료, 단순 통계 수치 자료로 가득 채워진 기사에는 엄지척이 현저히 적었다. 그의 시선이 무언가 예리하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조용히 생각해보니 그의 시선이 곧 시청자의 시선이라는 점이라고 불현 듯 느껴졌다. 그는 나쁜 아닌 다른 많은 기자들, 좋은 기사를 꾸준히 쓰는 많은 기자들의 구독자일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소식에 관심을 가진 구독자일 것이다. 하나의 가치가 아닌 다양한 가치, 미래적인 가치와 진실에 가장 근접한 팩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고마운 구독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문해 보았다. 좋은 기사뿐이다. 누구나 다 아는 기사가 아니라 새로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아마도 나의 든든한 구독자가 원하는 기사일 것이라고 느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배워가며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써가기 위해 고심의 고심을 거듭했다. 그런데 더 어려워졌다. 더 기사를 쓰기가 어렵고 힘이 든다. 그래도 여전히 ‘엄지척’을



보도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

보내주고 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나는 동료들과 의기투합해 새로운 취재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구글 뉴스랩 등 새로운 취재 기법에 대한 교육들이다. 새로운 취재 기법을 통해서 취재 방식을 다변화해서 더 새로운 정보를 취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담당 출입처인 교육 분야에 대한 공부의 범위도 넓혀 나갔다. 목적은 더 많은 구독자와 '엄지척'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교육 정책과 관련된 뉴스들이다. 이미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까지 여럿 생긴 그에게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체감도가 낮을 것이 분명했다. 예전 사회부에서 사건 사고와 지역 소식 등을 전할 때에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그 불안은 어쩌면 '엄지척'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반향이 없는, 소통이 없는 뉴스는 전달 의미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든든한 구독자'를 포함해 모든 세대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요한 현안과 관심 사항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 고심했다. 뉴스를 취재해 보도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반응하고,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거리 인터뷰 모습

그런데 최근 한 달가량 그의 격려와 피드백이 없어졌다. 그가 사라진 것이다. 그 사이 내가 쓴 기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본다. 좋은 기사, 별로인 기사, 부끄러운 기사 등등 다양하다. 그래도 그 안에 나만의 시선을 가진 기사도 있다. 그런데 그의 '엄지척'은 사라졌다. 더 좋은 기사를 써서 시청자의 마음을 얻자는 열망에서 이제는 그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해 연락을 한번 해보았다. 그에게서 받았던 마지막 '엄지척'을 바라보며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답 메시지가 왔다. 최근 모처럼 해외여행을 갔다 온 뒤로 몸이 아팠다고 한다.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 확진됐고, 지독한 두통 후유증이 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나의 든든한 구독자가 아파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있다니 큰일이었다. 그는 유튜브 노래 동영상을 보면서 지낸다고 했다. 그래도 안심은 됐다. 그의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답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의례적 멘트를 남겼다.

나는 든든한 구독자와의 짧은 연락을 마친 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좁은 시야로 그를 대해 온 것은 아닐까? 뉴스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를 단지 취재원으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곧 시청자였고, 포털을 이용하는 뉴스 구독자였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기도 했다. 나의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보면 나는 많은 구독 기자, 많은 대한민국의 기자 가운데 한명이었을 것이다. 다만 나는 그와 안면이 있는 정도일 것이다.

결국 내가 좁은 시야로 대해온 것은 뉴스 그 자체였던 것이라고 느껴졌다. 변화하는 뉴스와 흐름, 뉴스 시청자의 높아지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 해외 연수로 현업을 잠시 벗어났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핑곗거리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기에 시청자의 만족을 얻어낼 수 없었던 것 아닐까 느껴졌다. '엄지척'으로 느낀 이 깨달음에 조바심이 났다. 좀더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느껴졌다.

뒤늦지만 새롭게 발견한 사실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역 방송국 취재기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전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그'의 관심의 상징인 '엄지척'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나는 시청자에게 어떤 콘텐츠로 호소해야 하는가? '그' 뿐 아니라 지역 시청자, 전국의 시청자, 구독자를 위해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가?

좋은 기사일 것이다. 양질의 새 소식(NEWS)을 전해야 해야만 한다. 그뿐 아니라 세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담아서 전달해야 한다. '좋은 기사'를 TV,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독자, 시청자 등 많은 뉴스 소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물론 기본은 세상의 모습을 비추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와치독(watch dog)'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다.

얼마 전 모처럼 그에게서 '엄지척'을 받았다. 그가 보내온 링크의 기사는 '교육특례 3개만 반영..반쪽 시작 지적'이라는 기사였다. 스스로 자문해본다. 이 기사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새로운 취재기법, 새로운 시각, 전문가 취재 등등. 역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부끄럽지 않은 기사, 그것이 구독자가 원하는 엄지척의 가장 첫 번째 척도는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됐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학력 향상 교육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모습

입사 10년을 넘긴 중견 아닌 중견 기자인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새로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의 노하우는 있지만 세련미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지역 방송기자로서 더 치열한 접점에서 취재하고 보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각성을 얻은 것이다. 그 계기는 나의 든든한 구독자가 보내주는 '엄지척'이었다.

나의 든든한 '구독자'가 나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감사하고, 열심히 취재해야 한다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기자로 일하면서 있으면 안되는 기본 마음가짐을 되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든든한 구독자가 있어 다행이다. 취재원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의 후원자이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서는 든든한 구독자가 여럿 생기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엄지척'의 열정만큼 힘찬 취재를 시작해본다. 📍

KBS춘천 김영준 기자